

금남로에서



박 치 경
수석논설위원

4·13 총선으로 20대 국회는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됐다. 더욱이 여소야대(與小野大)여서 개원 초부터 몰아칠 소용돌이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모든 화두는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에 맞춰질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각 정당의 지향점이 내년 12월 20일 치러질 제19대 대선에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은 우리 대통령 리더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도 주목된다. 1948년 대한민국 헌정 시작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역대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을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겠다.

1948년 건국과 함께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가 재직한 1993년(2월 24일)까지 제1기 45년은 ‘권위적 계몽 리더십’ 기간으로 간주된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독립 국가 수립 직후 이승만부터 군부정권까지의 한마디로 ‘전

대통령 되려면 밥 먹는 문제부터 풀어야

제 군주형’이라 하겠다. 대체로 이 시기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대통령이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통치가 이어졌다.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틀어쥐 대통령은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졌다.

다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2018년 2월 24일 임기 종료)의 25년은 2기로 묶을 수 있다. 이 사이 두 김씨는 민주화를 완성했고, 노무현 이후 진보와 보수가 갈리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다.

이제는 국민 선택의 시대

1~2기 70년 동안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민주주의, 군부정권-문민정부를 거치며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숭한 희생을 치르고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소중한 정치 학습 기회를 얻은 것이다.

2018년 2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9대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리더십이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 즉, 이전까지는 특정 정파의 주도로 지역·연령·세대의 변수에 따라 정권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정치 소비자인 전체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선택 받

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기 대통령 당선 요건이 무엇이 될지 미리 짐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해법을 내놓는 이른바 ‘맞춤형 정치’를 하는 이에게 승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집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각각 ‘경제 민주화’와 ‘공정 성장론’을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부(富)의 쏠림과 성장 동력 고갈로 민생고에 시달리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는 이것 이상 더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없었을 것이다.

더민주가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제1당이 된 것은 현 정부의 실정과 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블랙 코미디’도 크게 작용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나라에 떨어진 서민층의 표심을 깨우고 내건 경제 민주화의 울림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선이 알려준 대선 전략

국민의당 역시 낡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3당으로 약진하는 토대가 됐다. 호남에서의 ‘반(反)문재인’ 정서를 녹색

돌풍의 진양으로 친다 해도,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빈부갈등 완화의 현실적인 해법은 증세로 확충된 국가의 총 재화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복지확대 등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4·13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목적인 핵심 공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대통령의 과반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총선 결과가 미리 알려준 것이다.

다음은 우리만의 특수한 고민거리인 남북 갈등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남북문제도 이전 경제로 풀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로 북쪽의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에 나선다면 우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구태여 중동에서 모래바람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남북 화해도 앞당겨질 것이다. 여기에 영호남과 진보·보수 및 세대 간 차이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틈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밥 먹는 걱정을 덜고 남과 북을 이어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 19대 대선에서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이는 바로 그런 정치인 아닐까. /unipark@kwangju.co.kr

은펜클럽



류 동 훈
광주시 광산구 주민자치과

광주는 지금 오월이다. 세월이 벌써 36년이 지났지만 광주는 다시 망월동묘역과 도청 앞 광장으로 시선이 머문다. 광주 5·18 민중항쟁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절대공통체’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한다. 바로 치안 부재의 시기에 범죄 하나도 없이 서로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점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5·18 정신이 여전히 과거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항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머물러 있는 5·18을 미래지향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혁명이 필요하다. 오월 정신을 미래지향적 사랑의 가치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광주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열

‘어둠 속의 빛’ 광주 인권문화콘텐츠로 만들자

마나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내느냐는 광주의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한 축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 시민들이 추진 중인 ‘어둠 속의 빛’ 인권 문화콘텐츠 만들기 운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둠 속의 빛’은 갑갑한 어둠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레크리에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시각장애헤 체험하는 문화전시공간이다. 진행자는 시각장애인들이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이는 자신들의 특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인도하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준다.

광주를 ‘빛고을’이라 부른다. 빛이 가장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둠 속이다. 이 어둠 속에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시각장애헤 체험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눈이 보이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가지는 일자리를 가지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의미가 큰 것은 어둠 속에서 더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이는 인권도시 광주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다. 그래서, 광주의 브랜드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적합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올해 2월에 ‘어둠 속의 빛’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재 임시일반 추진기금으로 모은 자금이 8000만원에 이른다. 광산구 인권팀에서는 이를 광산구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성공사례도 많다. 한국에서는 서울 종로구 북촌에 ‘네이버’가 만든 ‘어둠 속의 대화’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중 시각장애인이 21명이다. 8명씩 한 팀을 만들어 입장하면 90분 동안 어둠 속에서 시장도 보고, 배도 타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며, 찻길도 건너며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 90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게 지나간다. 2015년 누적관람객 수가 21만명에 이르고, 2014년에는 12억 매출에 1억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 직장연수,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줄을 잇고, 각종 모임 친목프로그램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어둠 속의 대화’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영국, 미국, 홍콩, 일본 등 전세계 30개국에서 850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인권도시 광주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 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지체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체험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으로 만들고, 장애인생산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도 함께 하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로 광주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설도 기존의 발상을 뒤집어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열악한 인권의 현장 속에 위치하게 하여 더욱 빛을 발하게 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모델들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인권문화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5·18 피의 희생을 사량의 정신에 상응력을 더한 인권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진정한 ‘빛’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자.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 영 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지난주 연휴에는 싱그러운 초록빛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삼삼오오 나들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모습 뒤에 갑작스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평할수록 위난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남도 사회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에서 진도 6.5의 지진과 16일 7.0 규모의 지진으로 사상자 1100명(사망자 49명)이 발생했

‘재난 대응 안전 훈련’에 참여합시다

다. 또 16일(현지시간) 남미 에콰도르를 강타한 규모 7.8 강진으로 사망자가 660명에 달하는 등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

일본·에콰도르 강진으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대만에서도 5.5 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해안에서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잦은 산불이 많았던 예년 봄과 달리 올해는 ‘불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올 여름에는 평년(732.2mm)과 비슷한 강우량을 보이나 지역적 편차가 크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온다고 기상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의 사막화도 급속히 진전돼 봄철에만 보던 황사도 심해져 불편을 주고 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민·관협력과 국민참여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시스템의 작동을 점검하기 위해 일제히 실시되는 훈련이다.

재난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훈련도 점점 실효성 높은 훈련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은 훈련 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생동감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5월17일 광양항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이순신대교’에서 광양시 등 26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전복·추돌로 인한 ‘교량복합사고’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교통량이 많은 해상 교량에서의 대규모 충돌·추돌사고에 대한 훈련으로서 교량복합형의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세계최대 주탑높이를 자랑하고 하루 2만여 대 차량이 통과하는 해상 교량의 교통을 실제로 차단하고 실시하는 실제 훈련이라는 점과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산단에 진출·입하는 물류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들까지 우회시키는 대규모 차량 통제훈련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민들은 실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이 닥쳐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재난훈련에 관심을 가지는 잠깐의 시간이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상황에서 큰 피해를 줄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전한 숲 속의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안전한 전남, 가보고 싶은 섬 안전한 전남’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삶의 모습이다.

社 說

민주평화교류원 합리적 대화로 조속 개관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 기간이 됐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평화교류원)은 여전히 전면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항쟁 흔적을 살려야 한다는 5월단체의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일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 본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거점이었던 옛 도청 본관 상황실을 비롯한 진압군의 총탄 자국 등 항쟁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의미가 크다. 전남 내 5개의 원(院) 중 하나인 평화교류원은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와 교감하기 위해 들어섰으며, 광주항쟁 10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애초 전남 측은 올 상반기까지 평화교류원을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 옛 도청·경찰청 본관과 회의실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콘텐츠도 약 90%가량 구축됐다. 하지만 원형 훼손에 따른 갈등으로 오는 6월 아시아-유럽 문화장관회의(ASEM) 때도 개관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5월단체들은 전남 측이 시민군 상황실(방송실)로 사용했던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사무실(서무과)과 건물 곳곳의 총탄 자국을 페인트로 덧칠한 것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또 이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일부를 전시장으로 바꾼 상황실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총탄 흔적을 조사하는 등 승의를 보였으나 엘리베이터 철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원상회복시키려면 개관이 더 늦춰지는 데다 따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전남 측의 책임이 작지 않다. 가급적 5·18의 흔적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5월 단체들도 현실 불가능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양보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적극 중재가 필요하다.

적자 지속 광주·무안공항 활성화 대책 없나

서남해안의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운영 적자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호남고속철 수서발 개통 등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 두 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지난해 30억 5700만 원의 적자를 냈으며 무안공항 역시 89억 6700만 원의 적자를 봤다. 이 같은 추세라면 무안공항의 경우 운영 적자가 2~3년 후에는 1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두 공항의 운영 적자는 이용객 감소가 주요인이다. 올 1분기 광주공항 이용 국내 여객은 17만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9%가 줄었다. 무안공항도 올 1분기 국제여객이 총 3만 964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1%가 감소했다.

이 같은 공항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 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두

공항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데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 광주공항은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 노선이 폐지되고 제주 연결 기능에 그치면서 승객 감소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안공항도 일본·중국 관광객 유치 등이 여의치 않으면서 이용객이 줄고 있다.

사실 광주공항과 군(軍) 공항 이전, 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연계’를 주장하는 광주시와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주장하는 전남도 간 입장차를 좁힐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항 통합이 미뤄지면서 정부의 공항 신규 투자에서 두 지역 모두 소외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는 우리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두 공항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 양 시도는 위기의 식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공항 통합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97년 대통령 선거(12월 18일)를 5일 앞두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출산 예정일을 1개월 넘겨 둔 시점부터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에 빠졌다. 당시는 야권 단 일 후보인 김대중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대중의 당선이 모두의 원일일 정도로 열망이 높았다.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당선을 기원하던 어느 날, 산배의 한 마디에서 딸의 이름을 얻게 됐다. ‘상서로운 기린’이 꿈을 이뤄 줄 것이라 기대를 담아 ‘서린’이란 이름을 지었

개성있는 이름

고 소망처럼 호남 정권이 탄생했다. 이름의 중요성은 동서양의 성인들이 이미 설파했다. 예수는 “아들과 딸에게 논밭을 주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처는 ‘명정기생’(名證其姓)이라 하여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고 공자는 ‘좋은 이름은 만사가 잘 된다’라는 의미에서 ‘명정순행’(正名順行)을 강조했다.

성명학에서 이름은 운세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밝을 명(明)은 머리는 명석하지만 인생에 파란곡절이 많다는 이유로, 구슬 옥(玉)은 배우자의 수명

을 단축시킨다는 속설 때문에, 맑을 속(淑)은 애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선언건 때문에 이름에 넣는 것을 꺼리는 것도 성명학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개명을 통해 운명을 바꿔 보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성적에 울고 웃는 운명운수들 사이에 개명이 많은데 유독 골프 선수들이 심하다. 이정은이란 여자 골퍼는 무려 8명이나 된다. 이정은 1~6도 부족

해 이정은A, B까지 등장했다. 완도 출생 최경주도 본명은 말주였는데 골프 입문 전 경주로 바꿨다. 개명 덕인지 그는 미

국프로골프(PGA)에서 통산 8승을 올린 세계적인 골퍼가 됐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이후 60여 년간 출생신고한 이름을 분석해 보니 남자는 ‘지훈’, 여자는 ‘영숙’이가 가장 많았다. 초창기에는 영수·영자, 영숙·미숙, 정훈·은주가 많았다가 요즘에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단연 인기란다. 세련된 이름만 추구하면서 개성 있는 이름보다 어감 좋은 이름만 넘쳐나고 있다. 비슷 비슷한 이름보다 잘 기억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이름이 최고가 아닐까.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